

## ‘유쾌한 글쓰기’로의 초대

조현희\*

‘학생이 말하는 글쓰기’라는 주제로 글쓰기를 요청받았을 때, 최근에 한 후배가 내게 질문했던 내용이 머릿속을 스쳐지나갔다. 그 후배는 내게 어떻게 하면 리포트를 잘 쓸 수 있는지,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지금 현재, ‘글쓰기를 좋아하는 선배’라는 위치에 있는 나에게 후배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런 유형의 질문이다. 글쓰기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글쓰기를 좋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없고 거의 대부분이 눈앞에 닥친 과제로 작성해야 하는 리포트를 빨리 잘 마칠 수 있는 방법이나, 글 쓰는 기술을 물어온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늘 아쉬운 점은 이 친구들이 늘 글쓰기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어려워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부담감은 한층 더 나아가 글쓰기를 좋아하거나 잘하는 것은 소수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 혹은 재능이 있는 학생들의 전유물인 양 바라보는 데까지 나아가곤 한다.

대학생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글쓰기에 대한 이러한 부담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때마다 나는 늘 아쉬웠다. 이는 내가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지금의 나는 그러한 부담감을 넘어 자유롭고 유쾌한 글쓰기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특별한 계기를 통해 쓰게 된 이 글이, 비록 전문적으로 잘 쓴 글이 아닐지라도, 실제 글쓰기에 대한 경험과 삶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현재 글쓰기에 대해 두려움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모든 학생들과 친구들에게 전하는 ‘유쾌한 글쓰기’로의 초대장이 되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길 소망해본다.

최근에 내 주위의 사람들은 나를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 비록 아직도 글을 아주 잘 쓰지는 못하고, 내 글은 더 발전해야 하고 자라나야 할 뜻이 많지만, 사람들의 평판과 같이 지금의 나는 글쓰기를 매우 즐기워하는 학생이다. 그러나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글쓰기를 좋아했던 사람은 아니다. 어쩌면 이 글을 읽을 학생들과 같이, 아니 어쩌면 그보다도 더 심하게 나는 글쓰기에 대해서 두려워했고 어려워했던 사람임을 밝히고 싶다. 특히 대학에 들어온 처음 1년간 나는 글쓰기를 놓고 많은 고민과 스트레스를 받았던 한 해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처음 핵심교양 수업에 들어갔을 때 난생 처음 받아본 학술적 주제에 대한 글쓰기나 전공과목의 리포트 작성하기는 대학의 첫 학기를 참 힘들게 만들었던 기억이 난다. 글쓰기가 두려워 차일피일 미루다가 선배에게 찾아가 울며불며 리포트 잘 쓰는 방법을 배워가며 밤새도록 글을 쓰기도 했고, 옆에서 글을 시원스럽게 잘 써내려가는 친구의 모습을 보면 팬한 시기심으로 질투하기도 했다.

이러한 태도로 1학년 때 글을 써서 제출할 때마다 교수님들과 주변 선배들에게 지적받았던 내용은 내가 너무 글을 어렵게 쓰려고 한다거나, 나의 글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글을 너무 흡내 내려 했다는 것이었다. 나의 글쓰기에 대해 받았던 이러한 평가들은 당시에는 나를 많이 아프게 했지만, 실제로 당시의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당시 나는 상당한 부담감과 두려움을 가진 채 글을 쓰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글쓰기를 나의 마음과 생각의 자유로운 표현의 장으로 보지 않고,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도구로 여기고 멋진 글을 작성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졌기 때문이다. 나의 글쓰기 실력의 문제나 적성의 문제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바로 내 안에서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의 벽이나, 글쓰기는 특별한 사람만이 잘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이었던 것이다.

글쓰기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깨지기 시작했던 계기는 1학년 2학기 ‘사회복지개론’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부터였던 것 같다. 당시, 전공 탐색과

목으로 들었던 이 수업에서는 매주 각기 다른 주제로 3장짜리의 리포트를 작성하는 과제가 있었다. 글쓰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러한 수업에 들어 가며 걱정도 앞섰지만 그 첫 시간에 글쓰기와 학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의 도전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나의 생각을 조금씩 바꾸어갔던 기억이 난다. 글쓰기, 특히 학술적 글쓰기란 누구든지 정직하게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을 활용해서 그 분야에서 약속한 글의 형식과 기호들을 활용해서 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며, 글을 쉽게 쓰기를 권하셨던 기억이 난다. 이 이야기와 함께, 매주 작성해서 제출한 리포트를 평가하며 격려와 지도해주셨던 과정은 나로 하여금 글쓰기가 어렵고 부담스러워 뛰어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차근차근 쉽게 배워갈 수 있는 것임을 알게 해주었다고 생각한다. 즉, 글쓰기에 대한 나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은, 옛적의 두려움과 부담감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글쓰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차근차근 배워갈 수 있는 재미있고 쉬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도전하게 되면서부터였다.

부담감과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은 분명 글쓰기와 친해지기 위해서 중요한 작업이지만, 글쓰기와 더 친밀해지고 그 글쓰기를 즐기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에게 한 발자국 더 다가가야 하듯이, 글쓰기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을 깨뜨린 것과 함께 글쓰기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학교 과제로 나오는 글쓰기 작업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담을 수 있는 글에서부터 자신의 생활과 생각, 경험들을 담아낼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를 계속해가기를 권하고 싶다. 나의 경우, 매일 아침 했던 묵상과 일기 쓰기, 수업 과제 리포트를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해보기와 같은 작업들은 내게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글쓰기의 유쾌함, 나만의 표현 방식 등을 발견하게 해주었던 것 같다.

이렇게 다양한 글쓰기를 하기 시작했다면, 이와 함께 혼자 쓰는 글쓰기에 머물기보다 함께 조별로 쓰는 글쓰기, 교내 글쓰기교실 및 지도교수님

과의 글쓰기 상담으로 나아가기를 역시 권하고 싶다. 혼자 쓰는 글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데에는 도움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현재 위치를 바라보지 못해 늘 정체하는 글쓰기에 머물게 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글쓰기를 다양하게 시도하는 만큼, 다양한 사람들에게 의견을 듣고 그 과정에서 글쓰기에 대해서 더 배워가고 새롭게 도전하기를 권하고 싶다. 글쓰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또 재미있게 쓸 수 있던 시간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팀별 과제로 글을 함께 썼던 시간과 교수님께 여러 차례 상담을 받으며 소논문을 쓸 때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1학년 때 리포트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눈물 흘렸던 한 학생이, 3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이 지나 제5회 우수리포트 공모대회(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주최)에서 뜻밖의 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지속적인 글쓰기의 반복과 특별히 팀과 함께 글쓰기를 하면서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한다. 즉,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글쓰기 역시 자신이 들인 마음과 노력으로 인해서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글쓰기와 더욱 친해지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와 함께 땀과 눈물의 수고가 들어가는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잠시 어릴 적을 기억해보자. 누구나 어린 시절을 기억해보면, 처음 말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 글씨 비슷한 어떤 것을 쓰기 시작했을 때, 문법에 맞지는 않지만 처음으로 어떠한 문장을 써서 부모님께 보여드렸을 때, 칭찬의 말씀을 듣고 기뻐했던 기억이 날 것이다. 또한 야단과 때로는 충고를 들으면서도 그때에는 즐겁고 달게 받아들이며 그 과정을 배워갔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 당시, 어릴 적 글쓰기는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배워가고, 자기 자신을 새롭게 표현해가는 시간, 그 가운데 기쁨과 유쾌함이 있는 창조와 표현의 시간이었기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끊임없이 다양한 글쓰기를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에도 글쓰기를 하면서 늘 그때의 그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반드시 잘 써야 한다는 생각에 처음부터 어려운 글을 흉내 내려 하면서 형식만 갖추기보다, 다시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이 설렘과 떨림,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열

린 마음으로 글쓰기 작업을 해나갈 때, 분명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자신만의 유쾌한 글쓰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5

## 국영문혼용체와 링구아 프랑카, 또는 모국어로 학문하기

김재영\*

\* 서울대학교 7·초교육원 전임대우강  
사

① “단백질 접힘(protein folding)을 지배하는 물리화학적 원리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 상태들을 energy landscape에 mapping하여 folding pathway를 규명하려는 시도들이 진행되어 왔다. 단백질 분자의 unfolded 혹은 partly folded state에 관한 구조와 dynamics를 연구하기 위해 다양한 NMR(nuclear magnetic resonance) 기법이 적용되고 있다.”

② “국내외의 Protein Separation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Research Group 을 소개한다.”

③ “최근 분자와 bulk 고체의 중간 특성을 가지는 반도체 quantum dot과 nanoparticle에 대한 연구가 되고 있다. 전자와 훌륭이 3차원 potential well 안에 국한되어 있으면 전도 대와 가전자 대가 불연속적인 상태로 분리된다.”

[번호는 필자]

인터넷으로 검색한 위의 세 인용문은 연구논문이나 연구소나 연구의 중심을 소개하는 글에서 흔히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을 보여준다. 이공계나 의약학계의 글에서 이와 같이 영어가 포함되는 일이 최근 10여 년 사이에 눈에 띠게 급증하고 있다.

오랫동안 한자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이겠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지식인들의 글이나 정부기관의 문서는 거의 예외 없이 한자로 기득 차 있었다. 이를 흔히 ‘국한문혼용체’라고 부른다. 가령 인터넷에서 다음과 같은 서술